

企業體質強化로 國際 競爭力 키울터

＝ 韓國電力技術(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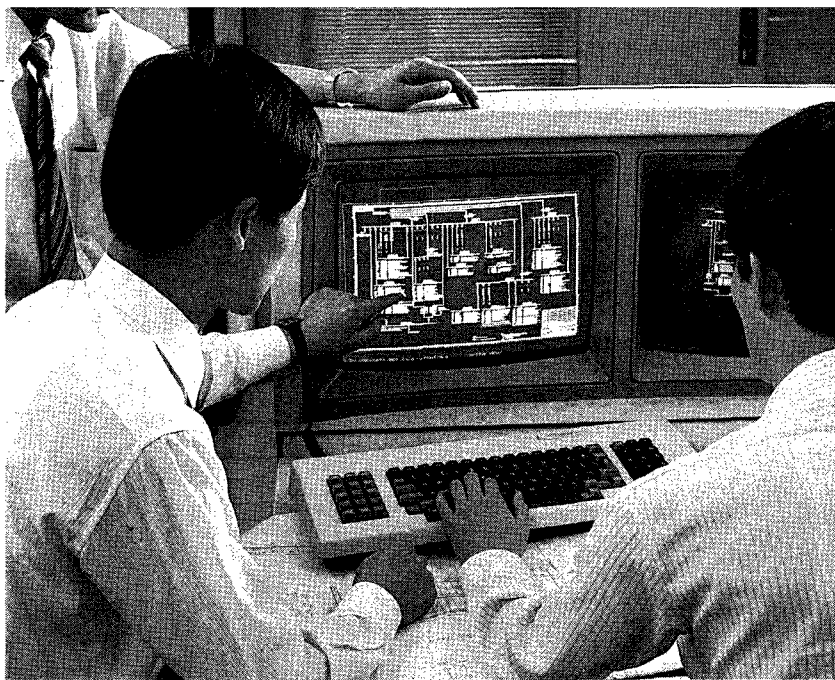


原電國內主導建設을 위하여 發電所 設計技術의 早期自立에 주력하고 있는 韓國電力技術(株)은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형 발전소 건설의 設計業務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電源開發事業의 성공적인 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韓技는 지난해 會社創立 15周年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國際的 A/E社로 도약하겠다는

長期發展目標을 설정하여 新任 李宗勳 社長의 강력한 지휘하에 企業體質 革新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그동안 주력해온 영광 3,4호기는 현장업무의 본격추진과 함께 Sargent & Lundy 기술진의 철수분야에 정예인력을 투입하고 업무이전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목표공정률을 적기에 달성하였고, 울진 3,4호기 및 월성 2호기 사업의 착수를 위한 준비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수화력



사업도 7개 주계약 사업을 동시수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기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였다. 그리고 技術開發費 50여억 원을 투자하여 自體技術開發課題 45件을 수행하고 국내의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각종 기술기준 및 업무절차서의 표준화와 ASME자격 갱신을 완료하는 등 原電 技術自立目的 82.7%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또한 經營管理의 內實을 기하고자 본부별 사업부제를 도입하여 내부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체제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목표관리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創立 15周年紀念 電力技術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發電所 建設에서의 A/E의 役割에 대한 理解와 信賴度向上에 노력하였다.

금년은 世界的 一流企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90년대의 두번째 해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술개발사업, 기술용역사업 및 업무능률 향상 작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되돌아 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진로와 실천계획을 확립할 계획이다.

韓技의 '91年度 經營與件을 展望해 보면 올진 3,4호기 및 월성 2호기 등 대형 주계약사업의 수주로 經驗技術을 풍부하게 축적할 좋은 기회를 맞이한 반면, 이들 다수 사업의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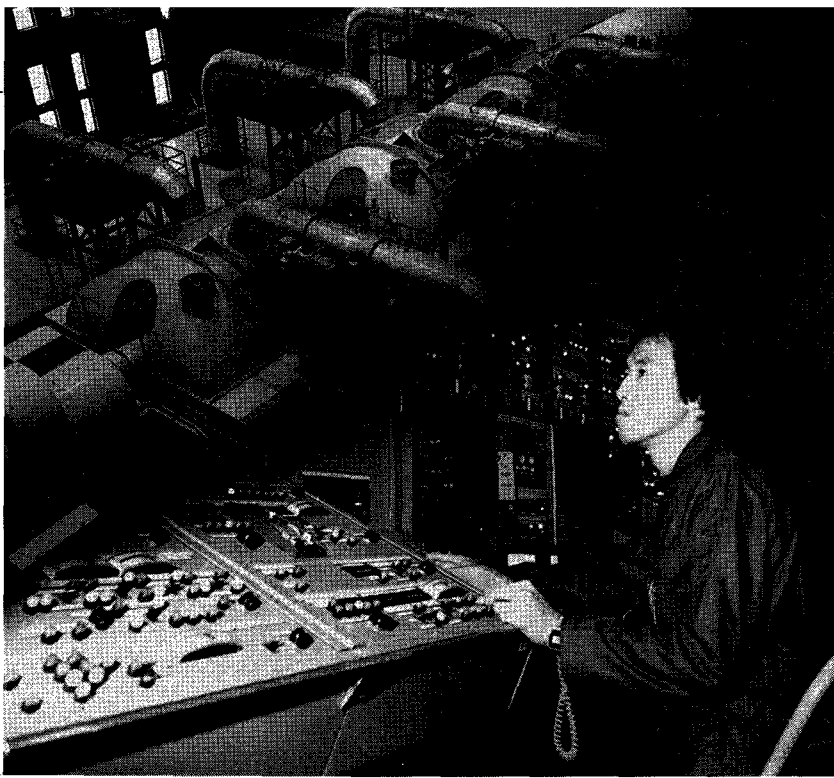
인 관리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대비하여 生産性 向上 및 技術優位 確保 等 競爭力의 強化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강력히 추진할 작정이다.

이러한 內外의인 經營환경 속에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다수의 대형사업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기여하고, 영광 3,4호기 사업을 통하여 脆弱分野技術을 補完하며, 올진 3,4호기 사업의 착수로 核心技術인 概念 및 基本設計技術을 體系의으로 축적하여 技術自立 水準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회사의 技術的 優位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技術開發을 더욱 확충할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기술과 핵심도입기술을 체계화하여 후속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므로 先進 事業管理技法을 開發하여 目標工程을 適期에 達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設計의 質的 向上 및 安全性 提高를 위해 品質保證活動을 強化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회사의 핵심요소인 人的資源의 能力 向上을 위해 教育에 주력하고 未來의 技術需要에



對備한 新技術開發에도 拍車を 가할 것이다.

둘째, 競争能力 向上을 위하여 劃期的으로 經營能率을 向上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하여는 선진 A/E회사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전사적인 사무자동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직원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자동화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도록 하고 관련 教育訓練實施 및 個人成果 分析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현재 위치를 재확인하고 그 위상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이 강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회사를 希望과 矜持에 찬 平生職場이라고 굳게 믿는 분위기를 가꾸어 나아갈 것이다. 회사경영에 증대한 요소인 노사관계는 상부상조이며 상호혜택을 주는 건실하고 생산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며, 숙원사업인 사옥건립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社勢의 躍進과 事業領域의 擴大를 위

하여 任職員 모두가 事業開發에 最大의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회사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事業多角化의 基本方案을 定立하고 엔지니어링 업무를 기본으로 한 컨설팅 업무도 활성화하며 발전소 관련 역무수행범위를 더욱 확대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海外市場 進出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技術開發도 課題化하여 강력히 推進할 계획이다.

넷째, 公企業으로서의 社會的 責任을 具現하기 위해 對外協力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相互理解를 增進하고 회사의 役割과 能力을 충분히 인식시켜, 회사에 부여된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協力體制를 구축하고 국내외 동종업체들과도 상부상조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원전사업에 대한 國民理解를 높이기 위해 原子力 弘報活動에도 적극 참여하고, 企業弘報를 활성화하여 韓技가 專門技術人集團으로서 高度의 技術能力을 보유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기술적인 信賴感을 갖도록 할 것이다.